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위업을 높이 반들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수호하며 중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혼신해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과 각급 부대 지휘관, 정치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만세!》의 폭풍 같은 환호성이 대회장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체 대회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그들을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 조선인민군 첫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으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지도하신 뜻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대회 참가자들이 당의 믿음과 기대에 맞게 인민군대의 세포이며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해나갈 때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이 더욱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이번 대회가 중대강화에 전군을 불러일으키는 혁신적정표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대회개회를 선언하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종래 조선인민군 차수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장령 김충삼, 군관들인 최국철, 변봉삼, 차영진, 리만복, 최광남, 리현순, 조현철, 김상일, 장경진, 박충심, 박선기, 강남혁, 강성실, 장정원, 최철환, 김광금, 민광해, 백명성, 사성국, 허철, 김광찬, 유상일, 리금혁, 길훈이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기간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었으며 전선시찰의 길에서 평범한 너성군인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뜻깊은 대회장에서 감나무중대 중대장과 옛 정치지도원을 몸가까이 부르시며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혁신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종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이를 위



하여 혼신적으로 노력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사업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모든 중대를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에 대한 당의 믿음을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모든 중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꾸리고 중대에서 최고사령관과 다시 만나자는 뜨거운 약속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건군사에 리정표로 되는 뜻깊은 대회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중대강화의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희세의 선군령장에 다함없는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중대강화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진주보석과 같은 애국자,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였다고 하시면서 대회폐회를 선언하시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대회장은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

결정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어 최종래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朗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중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오, 일당백의 전투대오, 군인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어 인민군대 강화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중대장 김상일, 중대정치지도원 박선기, 중대장 김광금, 함장 민광해, 중대장 사성국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령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체 대회 참가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몽쳐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대회폐회를 선언하시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대회장은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

의 환호성이 터져오르는 속에 크나큰 경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조선로동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군인들을 인민군대의 핵심꼴간으로, 나라의 기둥으로 훌륭히 키워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0월 24일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통하여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중대강화를 출발점으로 백두산혁명강군의 강화발전을 위한 전환적리정표를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속에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전체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의도에 맞게 중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준비시키며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

운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0월 24일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협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백두산혁명강군의 강화발전을 위한 전환적리정표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였다.

주체의 조선로동당기를 백전백승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한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가 숭엄하게 울려펴졌다.

무대에는 관현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녀성중창 《조국찬가》, 기악과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경음악과 노래련곡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녀성독창과 방창 《어머니의 목소리》, 현악4중주 《그 품 떠나 못 살아》,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녀성6중창 《달려가자 미래로》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혼성5중창과 남성합창 《경애하는 그이품에 안긴 이 행복》, 경음악 《병사들은 대답했네》, 녀성중창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녀성2중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지키세》, 혼성합창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억센 기상을 박력있고 경쾌한 선률에 담아 잘 보여주었다.

종곡 《운명도 미래도 맡긴 분》,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인민군대의 세포이며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여 조선로동당의 혁명위업을 종대로 믿음직하게 반들어나가려는 관람자들의 혁명적열정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모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인민군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담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모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의도에 맞게 중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준비시키며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에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승마봉사소, 실내승마훈련장, 승마지식보급실 등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에 들리시여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대한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승마구락부

부의 시설물들에 철저히 반영되고 모든 대상들이 당시 바라는 기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의 완공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하고 발전하는 주체건축의 면모로 보여주는 일대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착공의 첫삽을 박은지가 어제같은데 승마구락부가 훌륭히 완공되었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기에 미림승마구락부

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의 완공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하고 발전하는 주체건축의 면모로 보여주는 일대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착공의 첫삽을 박은지가 어제같은데 승마구락부가 훌륭히 완공되었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기에 미림승마구락부

부와 같은 방대한 공사를 불파 몇개월사 이에 성과적으로 끌낼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통하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최고사령관이 결심하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미더운 인민군대가 있는 한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파시하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들이, 류경구장병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대중봉사시설들이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인민을 위한 이런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미림승마구락부의 덕을 볼수 있게 승마구락부 준공식을 하루빨리 진행할때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교육과 인재

누구나 알찬 열매를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공화국의 교육제도를 뿌리에 비유한다면 알찬 열매는 바로 훌륭한 교육제도 속에서 배우며 자라난 수많은 인재들이

라고 할수 있다. 한 나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은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으며 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데서 나온다.

오늘 공화국의 교육제도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는 수많은 인재

들을 키워내고 있다. 그 뛰어난 인재들에 의거하여 공화국은 자기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하고 있다. 미국의 끊임없는 경제제재와 고립 압박에

동속에서도 공화국이 언제 한번 답보나 좌절을 모르고 승

승장구할수 있는 중요한 요

인종의 하나가 바로 나라의 발전을 주동하는 인재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한 것이다.

순수 자체의 힘과 기술로 최

첨단과학기술의 정수, 결정

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구

위성을 성과적으로 제작발사

한것은 그 반증이다.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들

을 수많이 가지고 있는 조선

의 발전잠재력은 대단히 크

다.》

지난 9월에 열렸던 제9차

평양가을철 국제 상품전람회

에 참가하기 위해 공화국을

방문한 뮤르끼에 메르트 벨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이 그처럼 간고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후대들을 위한 무료 교육제도를 변함없이 실시 하도록 하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끊임없는 초강도 강행군길에서도 수많은 대학들과 학교들을 찾으시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순조롭게 이끌어주시었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을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는 교육 중시사상을 확고히 견지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정치가 있어 공화국의 가는 곳마다에서는 언제나 배움의 글소리가 빙烺히 울려퍼질수 있었다.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오늘은 땅우에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지난해에 공화국에서는 전반적 12년제 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대 한 법령이 제1차 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생산문화제를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은정어린 손길아래 공화국에서는 1956년에 전반적 초등무교육제가 실시되면서 인민학교(당시)들에서 수업료가 폐지되었으며 1958년에는 전반적 중등무교육제와 더불어 중학교 학생들의 무료교육제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오직 후대들과 인민들을 더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취하실수 있은 내용단이었다.

그이의 뜻을 이어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로 더욱 빛내주신분은 위대한 본사기자 김강철

교육자들이 받아안은 특전

평양의 봉홍네거리에 초고층의 쌍기둥을 이루며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주인들이 새 살림을 떴다.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은 과학중시, 인재중시의 정치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한없이 고결한 사랑의 결정체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건설해주려는 것은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은하파

학자거리를 일떠세워 과학자들에게 안겨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

다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위해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해주신 것이다.

9일에 진행된 준공식에

도 목소 창석하시고 살림

집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집에 입사

할 교원, 연구사들이 교수

와 과학연구에 전심전력하

며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기를 축복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사람들이 제일처럼 기뻐하는 그 경사는 나라의 인재육성과 후대교육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

배로 여기시고 그들의 사업

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

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

여 여러가지 편의시설과 소

공원, 실내휴식터들이 갖추어지고 가구와 액정TV를 비롯한 비품들이 그흔히 구비된 현대적인 살림집이 교원, 연구사들에게 돌려지게 되었다.

이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과학중시, 미래중시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의 교육자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다.

과학발전을 중시하고 인

재육성에 힘을 넣고있는 공

화국의 현실을 두고 최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는 《김정은시대에 북은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로선을 계승하면서 새 세기 산업혁명목표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과학기술발전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런 과학중시, 과학자중

시의 로선과 정치가 있어

공화국은 강성국가의 형마루에 기어이 올라서고야 말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도록 하며 그자연 첨단설비들로 장비된 조건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현대화, 과학화실현을 경공업발전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여기시는 그이께서는 지난 3월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들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풍부한 잠재력과 확고한 기초를 축성한 경공업도 대를 통과시고 경공업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혁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눈에 띄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장과 함께 첨단설비들로 장비된 조건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기술개선을 더욱 다그쳐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며 산을 건너는 산을, 바다를 건너는 바다를 리용하는 것과 같이 지방의 특성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 주신 원수님입니다.

현대화, 과학화실현을 경공업발전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여기시는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들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 참석하시어 경공업공장과 같은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헌신적으로 높이자면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5월 통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평함

박근혜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내들고 집권한지 8개월이 된다.

그는 처음에 자기의 대북정책이 리명박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제3의 길》이라고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것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이 어떤것이며 그것이 추구하는것이 무엇인가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우리 최고존엄에 대한 비방증상과 체제재결평판은 혐의한 지경에 이르고 북침핵전쟁책동과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국도에 달하고있다.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마련된 대화평협상국면은 깨지고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있다.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허울뿐이고 결국은 대결을 추구하는 모략각본이라는것을 적자하게 보여주고있다.

원래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가 처음 내놓은 말도 아니고 동서행전시기 사회주의권을 무장해제시키고 봉파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이 만든 《헬싱키프로세스》에서 따온 말이다.

박근혜는 그것을 모방하여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이름을 달아 2011년에 미국잡지 《포린 어페어즈》에 처음 실었으며 그후 미국이 주도하는 《핵안보정상회담》 국제학술로론회에서 자기의 대북방향으로 발표하고 올해 5월 미국행각을 통해 상전의 최종인준을 받았다.

지금까지 혁대 페트로비치들이 저마다 형형색색의 대북정책간판을 들고나와 있지만 우리 말과 외어가 뒤섞여 잡탕말로 된 《신뢰프로세스》라는 피이한 간판을 내들기는 처음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은 한마디로 《신뢰》의 간판을 내들고 북을 변화시켜 핵포기로 유도하여 북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변화를 하면 그 무슨 《경계협력》을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것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와 결탁하여 체제대결과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으로서 리명박여당은 추구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00》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신뢰》라는 허울좋은 보자기로 감싼 매우 간교하고 흥악

한 반통일대결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며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적정책이다.

본래 《신뢰》라는 말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서 예로부터 사람들사이에서는 물론 국가정치와 사회활동 및 대외관계에서 신뢰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복과 남은 일찌기 7.4공동성명과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으로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비방증상하지 말며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데 대해 화약하였다.

이것은 신뢰조성의 첫걸음이며 대전제이다.

박근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처음 꺼내들었을 때 말로나마 자기가 친권하면 《신뢰구축》과 대화를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갈것이라고 하였으며 《대선》 후 보시절에는 북남공동선언을 《인정》 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았던 일도 있다.

그러나 취임의 막을 올리기 바쁘게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결과 유화책이 아니》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것》이라느니, 《북의 도발에 대해 한미공조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면서 대결정책을 드러냈다.

뿐만아니라 미국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더욱 광범위로 벌리었다.

그런가하면 외교안보팀을 압명높은 군부강매 출신의 대결광신자들로 꾸리고 《군부의 판단과 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북남관계를 전적으로 내맡기여 대결정책을 드러냈다.

그는 입만 열면 《북핵은 절대 용납할수 없다》느니, 《북이 핵개발로는 아무것도 얻을수 없다》느니,

《병행로선은 불가능한 환상》이라느니 하면서 《북이 핵을 포기 할 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제대로 추진될수 있다》고 공언하였을뿐아니라 그 무슨 《인질사태》와 《미군특공대작전》을 운운하며 선임자도 감히 엄두를 못내던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류례없는 《종북철결》 소동과 《마녀사냥》으로 남조선 련북통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날뛰고 무엄하게도 북남수뇌상봉 담화록까지 공개하는 탄동을

벌여 그 협력정책의 의지를 말살하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것도 현 《정권》이며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10.4선언관련 조항들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감행한것도 다툴 아닌 현 《정권》이다.

간판은 그 누구를 유혹해 보려고 《신뢰》를 내걸었으나 온통 누구를 《용납하지 않겠다》, 《원칙을 지키겠다》, 《옹정하겠다》는 대결적 폭언만 쏟아내고 있다.

오죽했으면 미국상전까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예상외로 강경한데 늘랐다》고 하면서 박근혜를 내놓고 추구되었는가.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총은 《불신프로세스》, 《대결프로세스》, 《실팡프로세스》라고 격분에 차서 야유, 조소하고 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우리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반

공화국전쟁정책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침한 전쟁책동이 중지되어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철수하여야 한다.

박근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내들면서 《북핵포기가 전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반공화국핵소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

그는 입만 열면 《북핵은 절대 용납할수 없다》느니, 《북이 핵개발로는 아무것도 얻을수 없다》느니,

《병행로선은 불가능한 환상》이라느니 하면서 《북이 핵을 포기 할 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제대로 추진될수 있다》고 공언하였을뿐아니라 그 무슨 《인질사태》와 《미군특공대작전》을 운운하며 선임자도 감히 엄두를 못내던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피뢰보수당은 《북에 끌려가는 대화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칙 고수》를 제창하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당국회담을 파탄시켰을뿐아니라 그 무슨 《인질사태》와 《미군특공대작전》을 운운하며 선임자도 감히 엄두를 못내던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류례없는 《종북철결》 소동과 《마녀사냥》으로 남조선 련북통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날뛰고 무엄하게도 북남수뇌상봉 담화록까지 공개하는 탄동을

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전략 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 비롯한 각종 최신미국핵전쟁장비들과 타격수단들이 더 빈번히, 무시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어와 돌아치면서 핵불장난을 벌림으로써 이 지역은 그야말로 미국의 핵무기전시장, 활무대로 되어버렸다.

리명박여도가 미국의 핵우산제공을 확약하는 《확장된 억제력》을 구걸하였다만 박근혜는 미본토핵무력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선제타격한다는 《맞춤형억제전략》을 체택하고 미국의 미싸일방어체계 구축에 전면 가담하는데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서해상에서의 국지전을 미군이 참가하는 전면전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라는것을 새로 작성해놓고 그 무슨 《원점과 지원 및 지휘세력》 타격이니 뛰어나면서 정세를 전쟁집경에 몰아가고 있다.

박근혜가 접촉한 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은 최절정에 달하였다.

이 땅에서 핵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강위력한 핵무력을 보유한데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그 일당이 《신뢰》의 미명하에 우

리의 핵과 지어 병진로선까지 걸고들며 《폐기》요 뭐요 하는 것은 외세와

아합하여 어떻게 하나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해보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남조선만은 장장 68년간이나 미국의 식민지지배 하에 놓여있으며 피

뢰당국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상전에 아부굴종하고 있다.

지금도 《수도》라고 하는 서울한복

판에 미군사기지가 빠짓이 등지를 틀

고있고 미국에 정치, 경제, 군사 등 모

든 분야가 철저히 예속된 상태로 있는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피뢰들은 력대적으로 썩고 부

폐한 미국식 자본주의를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로 분식하면서 그에 의한 제도통일을 추구해왔다.

리명박여도는 그 누구의 《개혁, 개

방》을 대북정책으로 내들고 《통일이

한반도에 도적처럼 올수 있다》고 망

발하면서 허망한 체제대결개꿈을 꾸다

가 내외의 비난만 받았다.

박근혜는 그에서 응당 교훈을 찾을

대신 말끝마다 《옳바른 선택》이니,

《변화》니 하면서 체제대결홍심을 더

욱로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리명박여도가 그 무슨 《급변사태》

망상에 사로잡혀 《기다리는 전략》

에 매달려 왔다면 박근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북의 변화를 기다리지만 말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피뢰관계자들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기본방침은 《선 변화》이며 종착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가 하면 《신뢰프로세스》가 북에 대한 《압박》과 《유인》의 《두길 전략》이라

는 것을 꺼리낌없이 훑고 있다.

피뢰폐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종착점은 《선 변화》이며 종착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가 하면 《신뢰프로세스》가 북에 대한 《압박》과 《유인》의 《두길 전략》이라

는 것을 꺼리낌없이 훑고 있다.

미국은 오늘날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 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리고 반미자주화운동의 표면이고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해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친미보수 《정권》을 유지하고 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을 저들의 지배하에 넣기 위한 책동에 피뢰들을 앞잡이로

써먹기 위해 반공화국압박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는것을 조아바이녕

고 있다.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

쟁에 미쳐나온것은 《신뢰》를 떠

드는것은 공허한 민망과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고 높이 밟드는 최고존엄과 체제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극악한

도발이다.

옳바른 선택을 하고 변화의 길로 나

와야 할것은 다름아닌 남조선피뢰당국

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끌어내고 자주

의 길로 나가는것은 현 시대적 추세

로 되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만은 장장 68년간이나

미국의 식민지지배 하에 놓여있으며 피

뢰당국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상전에

아부굴종하고 있다.

지금도 《수도》라고 하는 서울한복

판에 미군사기지가 빠짓이 등지를 틀

고있고 미국에 정치, 경제, 군사 등 모

든 분야가 철저히 예속된 상태로 있는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사실들은 《한반도신뢰프로세

스》라는것이 실지로 신뢰를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것이 아니라 불

신을 더욱 조장하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극히 불순한 모략각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는 이제라도 옳바른 리성을 가

지고 우리의 충고와 호소를 바로 새겨

들어야 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자체가 미국

이 사회주의나라들을 봉파에로 몰아간

《헬싱키프로세스》에서 재미를 보고 그것을 조선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피뢰들에게 줘여준 북침각본으로서 철두철미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과 대아시아전략의 산물이다.

미국은 오늘날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 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리고 반미자주화운동의 표면이고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해하고 있다.

현대적인 버섯연구기지-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인민생활향상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평양에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가 세상에 자랑할만한 현대적인 연구기지로 건설되었다.

연면적 6 100여 m²의 연구소에는 첨단수준의 각종 연구실과 실험실들, 새 기술보급실 등 버섯연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

현대적인 중앙버섯연구소가 일례점으로써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온 나라에 버섯생산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뜻을 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더욱 튼튼

히 마련되게 되었다.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김 일성 대원 수님과 김정일대 원수님의 유훈을 반드시 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버섯재배와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국가적인 연구기지건설을 발기하시고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버섯연구소건설을 인민군대가 맡아도록 하시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었을뿐 아니라 최신 실험설비들도 그흔히 갖추어주도록 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면서 공사를

힘 있게 내밀었다.

한국의 벽체를 미장하고 한장의 타일을 붙여도 티없이 맑고 깨끗한 향심을 바치면서 공사장마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원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것을 체질화한 인민군대의 본래 결집미학사상에 맞게 연구소를 특색있게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과학연구사업을 힘 있게 벌여 인민들이 실질적인 데려 보게 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무진화가 실현되고 지열에 의한 난방체계가 도입된 연구소에는 버섯재배에 필요한 기술보급 사업을 잘하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여러 연구 및 실험실들과 버섯재배장을 물론 사무실,

기본청사와 보조청사를 련결하는 외랑, 현관부, 휴식장 등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순색이 없다.

새로 일떠선 중앙버섯연구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에 맞게 연구소를 특색있게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과학연구사업을 힘 있게 벌여 인민들이 실질적인 데려 보게 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무진화가 실현되고 지열에 의한 난방체계가 도입된 연구소에는 버섯재배에 필요한 기술보급 사업을 잘하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각종 버섯품종들을 보관하는 균주보존실, 재배연구실, 유풍연구실, 기질연구실, 과학실험기구연구실 등과 육종 및 품종검증실을 비롯한 각종 실험실들을 버섯연구기지의 첨단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원종균과 버섯재배기질생산을 위한 중간공장과 재배온실들의 온도와 습도, 탄산가스, 조도를 자동조종하여 버섯재배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는 버섯재배장에서 연구사들은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위한 실천적인 자료들을 확정 할 수 있다.

연구 확정된 버섯품종들은 계절별, 지역별에 따라 전국의 버섯재배기지들에 공급되어 온 나라에 버섯생산바람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연구소에는 버섯연구재배와 관련한 기술자료들을 열람하고 보급할 수 있게 하는 전자도서관과 과학기술도록 회실, 열람실, 과학정보실, 새 기술보급실 등도 꾸려져 있다.

중앙버섯연구소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듣고 버섯품종의 육종과 재배기술 완성, 종균생산보장에 큰 힘을 넣는 한편 과학기술지도와 새 기술보급 사업을 잘하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이를 위한 첫 사업으로서 지난 10월 16일 카나다, 말레이시아, 미국, 월남, 인디아, 중국의 권위 있는 경제학 교수들,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평양의 양각도 호텔에서 특수경제지대개발과 관련한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제적인 경제특구, 수출가공구들의 특징, 개발 경험, 특수경제지대들이 해당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노는 역할 등을 대한 견해들이 교환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특수경제지대발전을 위한 활동방향들이 토의되었다. 토론회는 특수경제지대개발과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유익한 의견을 나누고 실천적 경험과 지식을 체득하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의 경제무역관계를 바라는 모든 나라들에 문을 열어놓고 외국투자자들이 희망과 국제판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법률적 환경도 마련하고 있다.

기자: 특수경제지대개발을 위해 조선경제개발협회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리철석: 조선경제개발협회는 나라의 특수경제지대개발에 도움이 되는 투자토론회, 상담회, 전시회, 경제정보교류, 자문봉사, 정부의 위임에 따른 투자합의, 투자자들의 기업활동방조와 같은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특수경제지대개발에 관심을 가지거나 투자에 참가하는 여러 나라 경제계와 기업계 등 광범한 인사들의 리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0일 조선국립민족예술단이 단동신구체육관에서의 공연으로 찬란한 조선민족의 문화와 예술을 단동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제2차 중조경제무역문화관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엄윤철, 김은국 선수들 금메달 쟁취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가 블스까의 브로즈와 브라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메히코, 태국, 꿈나, 펠비비아, 블스까,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월남을 비롯한 세계 59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 310여명이 참가하였다.

21일 남자력기 56kg급 경

기에서 출전한 우리 나라 엄윤철선수는 순간채기와 빠른 추기, 재치있는 험결동작들을 잘 결합하여 추켜올리기 종목에서 162kg을 성공시키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는 도합 289kg(끌어올리기 종목 127kg)을 들어올린 그는 종합 320kg으로 2위를 함으로써 은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본사기자

22일 남자력기 62kg급 끌어올리기 종목에 출전한 김은국선수는 순간채기와 정확한 반기로 150kg을 성공시키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추켜올리기 종목에서 170kg을 들어올린 그는 종합 320kg으로 2위를 함으로써 은메달을 받았다.

본사기자



엄윤철선수(←)와 김은국선수(↑)

체육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네트에 글 발표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9일 인터네트 홈페이지에 『조선에서의 체육열풍』이라는 제목의 글

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 체육열풍이 세차

게 일고 있다.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끊

어버지는 속에 가는 곳마다

에서 운동바람이 불고 있다.

민족부터 련이어 진행되고

있는 국내경기들에서 체육인

들이 승부를 다투며 새기록

을 창조하고 있는 가운데 기

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들에서 다양한 체육경기들이

활기 없이 벌어지고 있다.

평양의 대동강을 비롯

하여 곳곳에 꾸려진 공원들

은 배구와 바드민턴을 비롯

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늘

흥성거리고 있다.

조선사회를 훔쓸고 있는 체

나라의 전반사업을 이끄시

는 바쁘신 속에서도 여려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훈련모습과 경기들도 보아주시고 국체경기들에서 우승한 선수들도 만나시여 그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또한 근로자들과 군인들의 체육경기도 보아주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체육인들에 대한 훌륭한 관심과 훌륭한 경기장과 체육시설을 마련해주시는데 특별한 관심을 들리고 계신다.

조선에서 고조되고 있는 체육열풍은 그대로 국제경기들에서의 놀라운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의 체육선수들은 올해에 훌륭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고 있다.

온 나라를 훔쓸고 있는 체육열풍속에 조선은 체육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본사기자

조선국립민족예술단 찬란한 민족문화예술 선사

중국신문의 글

중국의 『료녕조선문보』

15일부가 『조선국립민족예술단 찬란한 조선민족문화예술 선사』라는 제목의 글

을 실었다.

출연자들은 무용, 가무, 가야금·병창, 합창 등 다채로운 종목들에서 높은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조선국립민족예술단은 재능있는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0일 조선국립민족예술단이 단동신구체육관에서의

공연으로 찬란한 조선민족

의 문화와 예술을 단동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제2차 중조경제무역문화관

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노래 『청장고원』 등을 재현하였다.

조선의 민족적 특색이 깃든 무용들은 공연을 최종정에로 이끌어가 관중들의 요란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선국립민족예술단은 재능있는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문은 예술단의 공연장면 사진도 함께 편집하였다.

본사기자

화로정기회장에서 망상 여인

활터 피어난 꽃들, 싱싱하고

얼마 동안 콩우유를 마시

지 못한다고 일이야 나겠는

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살

아온 나로서는 눈앞의 현실

이 놀랍기만 했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병원일군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콩우유를 동시에 먹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어비이 장군님의

뜻이였다고, 아이들을 제일

잘하는 푸른 꽃들이 여기에

모두 모였는데 그들은

황홀한 꽃바다를 펼

쳤다. 여기에도 온통 꽃,

꽃의 세계였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서 꽃을 끊어온다.

우리가 사는 거리와 마을,



백두대산줄기는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남
해가의 구제봉까지 뻗어있는
산줄기(길이 1 470km)이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백두산에서부터 지
리산까지를 하나의 산줄기로
정하고 그것을 백두대간이라
고 불렀으며 백두산을 우리나라
산악의 조종이라고 일
러웠다.

장폐하면서도 신비롭고 아
름다우면서도 억세인 백두산
의 기상과 정기를 민족의 놓
으로, 존엄으로 여겨온 우리
겨레는 백두에서 면면히 빛
어내린 백두대산줄기를 민족
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얼마전 평양대외문화교류
중심에서는 새로 나온 백두
대산줄기화첩발행식 및 사진
전시회가 조선오세안주친선

백두대산줄기화첩 새로 발행

협회의 명의로 진행되었다.
새로 발행된 백두대산줄기화첩은 뉴질랜드사람이며 『코레이도보려행』 사장인
로저 쉐퍼드에 의하여 제작
되었다.

동산가인 로저 쉐퍼드는
2006년에 조선의 백두대산줄기
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외세에 의하여 분
별된 조선의 토일이 하루빨
리 이룩되기를 바라는 마음
에서 조선은 조종의 산인 백
두산에서 빛나는 하나의 강
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
첩을 만들 결심을 하고 자기
가 직접 백두대산줄기에 대
한 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찍은 사진들로 화첩을 만드
어 세상에 내놓았다.

이번에 발행된 백두대산
줄기화첩은 우리 민족의 넓
이 깃들어 있는 백두산으로부
터 시작하여 지리산에 이르
기까지 백두대산줄기를 이루
는 수십개의 산과 봉우리,
고원 등에 대한 수많은 사
진자료들을 통하여 예로부터
백두대산줄기와 더불어 한지
맥으로 이어진 조선을 세계
에 널리 자랑하고 있다.

화첩에는 신비롭고 웅장한
모습을 한껏 드러낸 백두산
줄기의 수많은 산발들을 직접
등산하는 과정에 느낀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민족의 자랑으로 되

고있는 백두대산줄기는 조선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
되어있는 하나님의 강도,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확고한 신념
파의지의 상징이며 조선민
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이
통일되는 그날이 오면 나는
제일먼저 조선의 성산 백두
산에서 지리산까지 산릉선을
따라 모든 산들을 도보답사
할 것이다.』

백두대산줄기화첩은 조선
은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빛
나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의 강도이며 우리 겨레
와 진보적인 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
고야 말것이라는 역사의 진리
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고상하고 문명한 옷차림풍습

예로부터 동방례의 지국으
로 불리워온 우리 나라에서
는 옷차림과 관련한 고상한
례절이 창조되고 발전해왔
다. 우리 선조들은 옷차림
을 단정히 하는데 각별한 판
심을 돌려왔다. 바지, 치마,
저고리, 걸옷, 버선, 신발,
머리쓰개 등을 단정하게 갖
추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할
초보적인 료절이였다.

남녀 모두가 저고리나 걸옷
을 입을 때에는 동정의 이
가 꼭 맞게 함으로써 언제나
단정한 맛이 나오도록 하였으
며 옷고름도 되는데로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비모
양의 매듭이 되게 매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다. 남자들이
모자를 쓰는 경우에는 비풀
게 쓰는 일이 없이 바로 쓰
고 하였다.

남달리 료의 벼절이 밝았던
우리 선조들은 손님을 대할
때에도 자기 옷차림에 큰 판
심을 두었다. 손님 입장에
찾아왔을 때 주인이 속옷바
람이나 옷을 바로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일이 없
었다. 반드시 옷차림을 바로
한 다음에 손님을 접안에
맞아들였다. 다른 접에 찾
아갈 때에는 의례히 접밖에
서 옷에 묻은 먼지 등을 말
끔히 털고 옷매무시를 바로

하였다.
이러한 풍
습은 옷사람
을 대할 때
나 아래 사람
을 대할 때
나 마찬가지
였다. 누구나
다른 사람과
만나기 전에
자기 옷차림
부터 살펴보
고 단정히 한
다음 만나는
것을 떼의로
여기였다.

고상하고
강직한 품성
을 가진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여력을 살렸
속에서도 옷차림을 깨끗하
고 단정하게 하군 하였다.
옷이 해지면 제때에 순절해
놓고 옷에 구김살이 없도록
일상적으로 다려입었다. 너
성들은 늘 몸에 바늘과 실
을 지니고나 있었으며 구겨
진 옷이나 빨래 한 옷은 꼭
꼭 다림질을 하군 하였다.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리용
해온 다듬이돌, 방망이, 흥
두께와 같은 다듬이질도구들
은 이런 풍습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고구려시기 민족옷차림

이처럼 우리 선조들이 언
제나 옷을 고상하고 단정하
게 입었기 때문에 이웃나라
들에서는 우리 민족을 가리
켜 『깨끗하게 사는 민족』
이라고 칭사를 아끼지 않았
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풍습이 훌륭
히 보존, 발전되고 있으며 옷
차림과 료의 벼절에서도 민족
의 정기와 향취가 넘쳐나고
있다.

본사기자

누월을 하면 거품이 잘 일게
되며 목욕후에 피부가 매우
부드럽고 생기를 띠게 된다.

본사기자

피부를 부드럽게 하려면
닭알 한알과 와닐린 반차
하여 세게 저어준다.
술가락, 양초 반고루를 혼합
하여 온물에 바르고 비

을 풀어놓고 옷매무시를 바로

나온 옷을 풀어놓고 옷매무시를

를 풀어놓고 옷매무시를